

감비아에서 소식 전합니다

2020년 9월 25일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퍼붓던 비가 잦아들기 시작하고 이제 장장 9개월간의 건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은 1년 중 가장 덥고 습한 달이지만 시원해지기 시작하는 11월에 대한 희망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세네갈에 잘 도착했습니다.

세네갈/감비아 국경을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코로나 검사와 주세네갈 대한민국 대사관의 협조 공문, 에스더를 데리러 2시간을 운전해 국경까지 와 준 에스더 친구 가족 등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에스더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대학지원에 필요한 SAT 시험을 치렀습니다. 진학준비와 쌓여진 숙제로 힘들다고 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감비아/세네갈 국경에서 마중 나온 세네갈 선교사 가족과 함께)

성경과 텔레비전

저희 집에 사는 이벳은 영어로 의사소통과 기도를 능숙하게 하지만 정작 글을 몰라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이벳에게 영어 읽기를 몇개월 동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약한 이벳을 위해 큰글 성경을 선물했습니다. 이벳에게는 생애 첫번째 성경책입니다. 아직은 글자를 더듬더듬 읽지만, 곧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벳 가정에 코로나 기간동안 아이들이 집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이

감혀있는게 안타까워서 텔레비전을 사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해 했습니다.



또 다시 시작되는 온라인 수업

기독교학과에 신입생이 5명이 들어왔습니다. 대학 지원 기간에 온 나라가 비상상황이었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보는 시험도 제 때 치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동료 교수나 저나 이번에는 신입생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신입생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온라인 수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늦은 인터넷 속도와 학생들의 대부분이 핸드폰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난 학기 수업은 학생이나 교수 모두에게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학기도 매우 힘든 여정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돕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eryl MacJohnson: 지중해의 사이프러스(성경의 구브로)의 사이프러스 국제대학(Cyprus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전기/전자공학 석사과정 (학비의 70%).
2. Silva Marian: 감비아 칼리지를 졸업했지만 대출한 학비를 내지 못해 졸업장을 받지 못해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는 신실한 자매.
3. Emmanuel I. Achebe: 제 학생의 아들로 감비아 의대에 재학중 (학비의 40% 정도).

4. Joseph John Gomez 와 Blessing Ndupu:
기독교학과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두 명의 학생 (학비의 85%에 해당).
5. James Karju: 저희 집에 사는 제임스의 대학 지원을 위한 시험료 지원.
6. Daniel Jatta: 기독교학과 4 학년을 이번에 마친 다니엘을 저의 히브리어 수업의 조교로 고용 했습니다. 조교로 생활비도 벌고, 동시에 기도 중인 목회학 석사 공부를 위한 준비도 되길 바랍니다.
7. 이 외에 아내가 일하는 선교단체 캠퍼스 사무실에서 청소하는 무슬렘인 젊은 싱글맘 아미에게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아미는 최근에 가슴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기도하며 전도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도움들이 가능하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서아프리카에 이 사역을 통해 훌륭한 말씀 사역자와 기독교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하며 학생들을 돕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1. 감비아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교인들과 학생들, 길거리의 사람들을 “지혜”롭게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올해 7명 정도의 학생들이 4년간의 학업을 마쳤습니다. 졸업식은 내년 2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5명의 신입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 1월 학기에 신입생이 더 있을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3.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인터넷 데이터를 주고, 학생들은 핸드폰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힘든 환경이지만 수업들이 잘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4. 저희 가족의 건강과 아이들(에스더와 지호)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윤만희 선교사는 감비아의 유일한 신학 학위(B.A.) 프로그램인 감비아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40여명의 학생들에게 성경과 신학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이현정 선교사와 에스더, 지호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만희 선교사의 Global Scholars Canada 페이지:

<http://www.globalscholarscanada.ca/about/gsc-scholars/manheeyoon/>

Email: manheeyoon@gmail.com, 카톡 ID: manhyoon

사진 몇 장 나눕니다.



부엌 창틀의 식물:
“너는 어떻게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었니?”



집 앞에 생긴 물길



트럭, 당나귀, 아낙네들